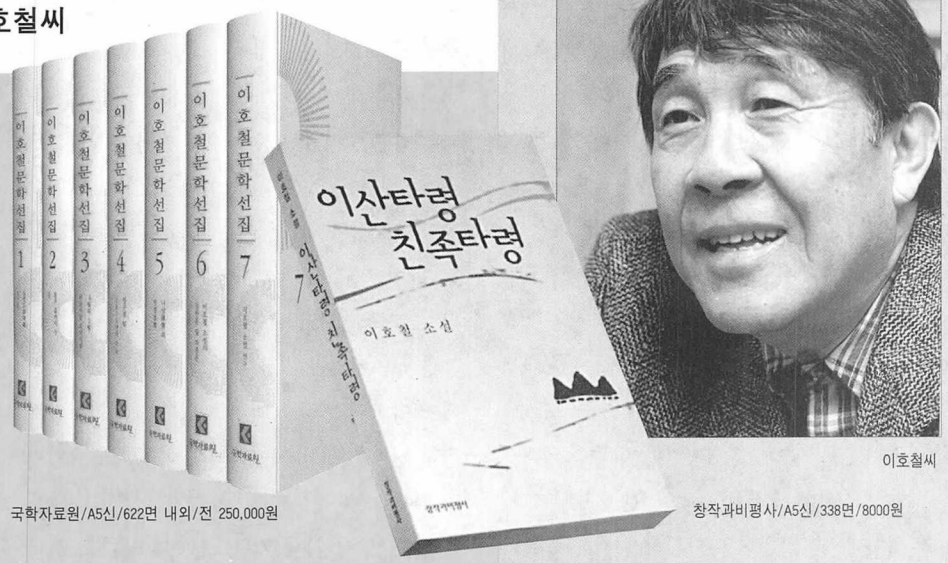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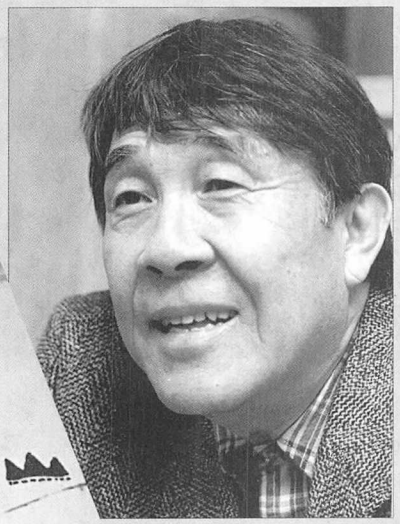
광기의 세월 견뎌낸 민중 묘파해온 이야기꾼

《이호철문학선집(전7권)》 외 펴낸 이호철씨



국학자료원/A5신/622면 내외/전 250,000원

창작과비평사/A5신/338면/8000원



이호철씨

소설가 이호철씨(70)에게 지난해와 올해는 잊을 수 없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지난해 꿈에 그리던 북녘의 누이동생을 만났다. 1950년 인민군에 동원돼 국군의 포로가 됐다 풀려나 월남한 후 무려 반세기가 흐른 후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올해 고희를 맞이한 데다 《이호철 문학선집(전7권)》을 헌정받았고, 통일칼럼집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이상 국학자료원)와 다섯번째 작품집 《이산타령 친족타령》(창작과비평사)을 펴낸 것이다.

뒤늦게 찾아온 겹경사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어이없다"는 짤막한 말로 갈무리한다. 혈육상봉의 감회가 어이없다는 것은, 헤어질 때 아홉 살이던 누이동생을 흰머리 수북한 쉰아홉에야 겨우 만날 수밖에 없는 분단의 비극에 대한 답이다. 현역작가로서 마르지 않는 이야기꾼의 면모를 과시해온 그가 어느새 고희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도 그에겐 어이없는 일이었다.

탈향에서 귀향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이씨의 문학은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행동양태를 묘파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 마치 미궁에 갇힌 인간군상의 행태를 냉정하게 기록한 전지적 관찰자의 임상일지와 닮았다. 그에게 미궁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산이었고, 그 속에 갇힌 군상은 온갖 수난을 낮은 포복으로 견뎌온 민중이었다. 1990년대 이후 지리멸렬한 내면탐구에 빠져드는 우리 문단에서 그의 문학이 희귀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50여년에 가까운 이호철 문학인생의 1차 결산이 《이호철 문학선집》으로 묶였다면, 《이산타령 친족타령》은 그의 1990년대판 문학 이력서이자 앞으로 채워나갈 문학적 공란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내 소설의 총량은 '탈향에서 귀향에 이르는 도정'"이라고 압축한다.

"모든 작가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자기토로입니다. 직접적이냐, 우회적이냐, 상징적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한국전쟁 때 고향을 떠나 남쪽에 적응해온 것이 내 삶이자 문학이었죠. 내 문학이 탈향에서 귀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작품집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런 문학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표제작 〈이산타령 친족타령〉이다. 해방 후 귀국선에서 이웃집 과수댁에게 큰 아이를 맡겼다 생이별한 부부가 70년대 말에 사십줄의 큰 아이를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다. 창졸간에 아이를 빼앗겨버린 어머니가 30년의 세월이 지나 과수댁을 만났을 때, 과거의 원한과 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정분을 나누는 장면에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지식인들이 정교화해온 통일론은 고압적이고 관념적이었죠. 정부는 정부대로 통일론을 억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통일을 골치 아픈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통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북의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한솥밥 먹는 사람이 늘어나 정분이 쌓일 때 한 살림, 즉 통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작품집에서 이야기꾼으로서 작가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은 〈비법 불법 합법〉이다. 사선을 넘나드는 전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임기응변으로 상사를 사살하고 제대 후 생활전선의 역군으로 밑바닥을 버텨온 원상사의 인생역정을 냉정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작가는 원상사에게 '생짜 민중'의 적나라한 모습을 투영하고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을 공격한다.

"밑바닥 인생 거쳐온 생짜 민중만이 희망이다"

"지금까지 민중이란 말은 오용돼온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개념화한 민중은 하나의 이념형일 뿐 실제 민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버텨온 힘은 바로 원상사 같은 생짜 민중이었죠. 폼 잡고 잘난 척하는 먹물 든 지식인이 주도하는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 잇속 챙기지 않고 맑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통일은 가능할 겁니다."

이씨는 당대 삶의 현장에 밀착된 이야기를 밀도 높게 형상화하는 데 문학의 본령이 있다고 믿는다. 그 자신의 표현처럼 '통틀어 미친 세월' 동안 수난을 겪어온 민중의 삶을 증언해온 그의 문학은 이제 귀향으로 귀착하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남녘 북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일이 자신의 몫이라고 그는 말한다. – 박천홍 기자